

# “광주 선후배들에게 졌던 오래 된 빛 조금이나마 갚았다”

5·18 다큐 소설 '광주 아리랑' 연재 마친 정찬주 소설가·이정기 화가

광주일보가 창사 68주년과 5·18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아 기획한 정찬주 소설가의 다큐소설 '광주 아리랑' 대장정이 최근 마무리됐다.

지난해 9월부터 연재해 총 31회까지 연재된 '광주 아리랑'은 현대사의 가장 큰 비극이었던 광주 5·18을 노동자와 빈민들의 관점에서 다뤄 형식으로 풀어낸 작품이다. 당시 항쟁에 가담했던 광주 시민들의 입장에서 팩트를 기반으로 소설적 상상력을 가미해 그렸다. 작가는 80년 5월 14일부터 27일까지 광주의 실상을 유니버스 형식을 차용해 장편소설 방식으로 담아냈다.

정찬주 소설가와 삽화를 그린 이정기 화가가 최근 화순군 쌍봉사 자락 이불재(耳佛齋)에서 만났다. 지난해 9월 연재를 시작하며 만났던 두 작가는 8개월여에 걸친 대장정을 마치고 다시 자리를 함께했다.

코로나 여파로 산사 또한 잠잠했다. 그렇잖아도 인적이 드문 산중이라 여는 때보다 한가로움이 느껴졌다. 반쯤 열린 일상에서 가끔은 산사를 찾아야 할 이유가 '편안한 격정감' 때문이 아닐까 싶었다. 바야흐로 늦봄에서 초여름으로 향하는 계절, 산 곳곳은 푸른 휘장을 걸쳐놓은 듯 싱그러운 기운이 감돌았다.

'집필중'이라는 사립문에 걸린 문구가 예의 반갑다. 이곳에 올 때마다 맺말이 주는 의미가 가볍지 않아 사립문 앞에서 멍하니 멍하니 있었다.

"광주 선후배들에게 졌던 오래 된 빛을 조금이나마 갚았다는 느낌이다. 무엇보다 내 나이 70 직전에 썼다는 것이 다행스럽다. 더 나이 들면 정신이 흐려질 것 같았고 세월도 나를 기다려주지 않을 것 같았다. 연재할 수 있도록 지면을 배려해준 광주일보사에 감사드립니다. 5·18광주 역사를 광주일보사에 주도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고, 그래서 자부심 같은 것이 더 생겼다."

정 작가의 표정에는 고투를 벌일 때의 그것과는 다소 달랐다. 일상적인 수사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어려운 숙제를 끝낸 이의 흥분분함이 느껴졌다.

아마도 미리 원고를 받고 삽화를 그려야 했던 이 작가의 고통 또한 만만치 않았을 거였다. 이 작가는 전에도 조금 살아 보여기도 했다.

"매 회당 부담이 가는 작업이었다. 단순한 삽화가 아니라 우리의 역사를 다룬다는 점과 아직도 끝나지 않은 '5·18'의 이야기를 어떻게 해야 누가 되지 않을까, 심리적 부담이 컸다. 그리고 소설은 끝났지만 현실에서는 진실을 규명해야하는 과제가 있어 더욱 무겁게 느껴졌다."

사실 31회의 작품을 쓰는 동안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을 것이다. 정 작가는 연재를 시작할 당시 인터뷰에서 "마치 호랑이한테 물어뜯기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다"고 했었다. 그러한 가혹함은 소설 쓰는 내내 자신을 괴롭혔다고 한다.

그는 "연재하는 동안 나는 그 시기로 매번 들어가곤 했는데 계엄군의 만행과 야만을 보면서 나 역시 생지옥에 있는 것처럼 느꼈다"며 "연재를 시작하고 세 달쯤 지났을 때 현경이 일어나 몸무게를 재보니 7kg이나 빠졌다"며 웃었다.

아마도 그의 표현대로 5·18을 다룬 '광주 아리랑'은 "매태포아를 버리고 콜로세움 안에서 사투를 벌



화순 이불재에서 만난 정찬주 소설가(오른쪽)와 이정기 화가.

여야 하는 검투사'와 같은 심정이었을 것이다.

소설가는 소설가대로, 화가는 화가대로 8개월이라는 결코 짧지 않은 시간 창작의 고통을 견뎌야 했다. 이 작가는 "삽화를 그리는 형식적인 문제보다 내용에 대한 시각적 이미지의 해석과 접근이 쉽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자신의 부

### 정찬주 소설가

“신부·주방장·용접공·구두닦이

5·18 주역 민초들 이름

역사의 비석에 기리고 싶었다”

작업이 "자칫 누군가에게 큰 상처를 주거나, 역사적 오류를 범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했었다"고 덧붙였다. 아마도 그의 말에는 역사적 사건을 다루기에 "혹여 진실을 왜곡하거나 오해의 소지가 없기를 바랐다"는 의미가 담겨 있었다. 한편으로 예술의 길을 가는 후배로서 '정찬주 작가 글에 대한 누가 되지 않았으면 하는 심리적 압박'도 있었을 거였다.

그렇다면 두 작가는 어떤 부분에 주안점을 두었을까. 글과 그림이라는 서로 다른 매체의 특성은 형상화 면에서도 상이했을 것 같다.

"지금까지 조명되지 않은 광주시민들을 중심에 두고 써보려고 생각했다. 물론 인간의 보편적인 입장에서 참여한 신부와 스님은 종교적 양심에 따라 행동한 분들이므로 별 이유는 없었다. 따라서 '광주 아리랑'에 등장하는 인물은 신부, 승려, 식당 주방장, 요리사, 시장상인, 운전수, 페인트공, 용접공, 가구공, 선반공, 방직공장여공, 영업사원, 재수생, 구두닦이, 농사꾼 등등이다. 나는 이분들을 한 분 한 분 '광주 5·18역사로서의 소설'에 주인공이자 증



오월의 역사를 지켜보는 눈동자-1회 삽화.

인으로 화강암 같은 개결한 역사의 비석에 이름을 깊이깊이 새기듯 영원히 기리고 싶었다."(정찬주)

"소설에 기본적으로 충실하고자 했다. 그 당시 현장의 긴장감과 현실적인 감정을 고찰하고자, 시공간적 상황을 느낄 수 있는 5·18증언자료(5·18 연구소)를 주로 읽었다. 이를 통해 한 회 한 회의 상징성을 가지는 이미지, 또는 한 순간을 포착한 이미지나 은유적인 표현을 묘사했다. 물론 거기에는 화가로서의 상상력이나 재해석 등을 바탕으로 표현했다."(이정기)

지금까지 오월문학이라는 이름으로 다수의 작품이 창작됐다. 나름의 의미와 가치가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럼에도 이번 '광주 아리랑'은 다큐 형식을 차용해, 수많은 민초들의 이야기를 풀어냈다는 점에서 작家的인 울림을 준다.

### 이정기 화가

“매회 상징성 가진 이미지

화가로서 상상력 재해석 가미

역사적 오류 범하지 않을까 고민”

정 작가는 "그들의 소망은 결코 크지 않았다. 계엄군의 만행에 당하면서 '나도 사람이니 짓밟지 말라'는 것이었다. 다시 말해 이웃을 지키기 위해 싸우고 있다는 '나도 광주시민이다'라는 자존감과 자기존엄성을 찾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번 소설은 항쟁에 나선 이들의 '우리는 폭도가 아니다'라는 피맺힌 울분을 대변하는 일이었다. 한편으로 작가는 항쟁에 가담한 사람들만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 스스로 경계했다고 한다. "끝내 충을 들지 못하고 양심의 소리에 괴로워하는 자의 고통도 같은 무게로" 쓰고자 했다는 것이 작가의 속내다.

삽화를 그리는 동안 이 작가는 늘 가슴이 먹먹했다. 5·18 민주화운동 전체가 아픔이며 비극이기에 소설을 읽거나 자료를 수집하거나 이미지를 구상하는 모든 과정이 순탄치 않았다. 특히 그는 "시민군이 도청을 마지막까지 사수하고자 결의하지만, 이내 진압작전이 곧 펼쳐질 거라는 긴박한 순간과 마주하게 된다"며 "만약 내가 그 현장에 있었다면 과연



오월 광주의 대동정신을 상징하는 주먹밥-21회 삽화.



27일 항쟁 마지막 날 옛 전남도청-31회 삽화.

그런 용기가 있었을까? 두려움과 부끄러움이 앞선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정 작가는 왜 '광주 아리랑'을 소설로 써야겠다고 생각했을까. 굳이 아픈 상흔 속으로 '야만의 시간' 속으로 굳이 들어가야 했을까. 작가의 말에서 일말의 답을 찾을 수 있었다.

"5·18항쟁 당시 홍보부장을 했던 고(故) 박효선이 죽마고우다. 초등학교 시절에 친구는 동명동 살았고 나는 산수동 살면서 겨울에는 눈싸움을 했고 사춘기를 함께 보냈던 사이였다. 계엄군이 80년 5월 27일 새벽 무자비하게 도청을 점령하자, 친구는 광주에서 10여 일 피신해 있다가 트럭조수로 위장해서 서울로 탈출했다. 그때 친구는 상명부속여고 교사였던 나를 찾아왔고, 수유리에 있던 내 자취방에서 10여 일을 피신해 있었다. 퇴근해서 집에 오면 날마다 밤을 새우다시피 하면서 친구에게 참혹한 광주 이야기를 들었다. 이때 언젠가는 5·18 광주 역사를 소설로 쓰겠다는 생각을 했다."

그는 오랫동안 부채의식 때문에 5월을 형상화하

기가 쉽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그러나 40주년을 맞이하게 되면서 그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자각했고, 5·18을 경험한 세대가 경험하지 못한 세대에게 광주 역사를 온당하게 기록해서 남겨주어야 한다는 책무 같은 것을 깨달았다고 한다.

아마도 그런 연유로 작가는 '다큐소설'이라는 이름을 붙였던 모양이다. 다큐는 논픽션(실화)이고 소설은 픽션(허구)이기에.

한편으로 이번 작품이 실화와 허구의 경계에 있던 터라 인물을 삽화로 묘사하는 데도 작家的인 어려움이 있었을 터다. 연재 중에 특히 기억에 남는 게 있느냐는 물음에 이 작가 역시 인물의 형상화를 꼽았다.

"실존했던 인물들의 이미지 자료의 미흡함과 제 역량의 부족으로 인물표현에 아쉬움이 남는다. 특히 소설 14회에 전옥주·차명숙 두 분의 40년이 지난 모습을 조명하고 싶었는데, 자료 수집과 실존 인물에 대한 연구의 부족함 탓에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

그럼에도 두 작가는 서로의 작품에 대해 호감을 갖고 있었다. 작업을 하는 동안 보이지 않는 신뢰관계가 형성돼 있었다.

"이정기 화가의 삽화는 투박하고 거칠지만 소설과는 매우 잘 어울렸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기존의 민중화(民衆畵)가 진화한 느낌이었다. 특히 연재 1회 때의 눈 그림은 압도적이었다. 5·18역사 전체를 관통할 것 같은 '광주 역사의 눈'처럼 강렬했다. 그래서 '광주 아리랑'을 발간할 때 소설 속 삽화를 넣을 생각이었다."(정찬주)

"정찬주 선생님과 함께 작업을 하게 돼 영광이었다. 역사적 진실과 아픔을 글로 표현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장면 하나, 하나가 설정된 픽션이 아닌 사실 자체를 재현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다. 무엇보다 역사적 현장과 아픔을 머리와 가슴 사이를 오가며 글로 그려내는 작업에서 작가의 힘을 느낄 수 있었다."(이정기)

두 작가의 대화는 마치 시공을 초월해 40년 전 5월 어느 날로 돌아가 있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킨다. '갈굼'과 '그림갈'에 갇혀 있던 두 작가의 얼굴이 조금은 밝아진 것도 같다. 산사의 새소리, 바람소리가 어디선가 설핏 들려온다.

그리고 인터뷰가 끝나고 며칠후 소설 '광주 아리랑'(2권·다연)이 출간됐다.

/박성진 기자 skypark@kwangju.co.kr

## ESS시공전문기업

# 태양광발전소

부지·시설 고가매입

● 매매대상 ●

- 개발행위 허가전 발전소
- 개발행위 허가중 발전소
- 현재 공사중인 발전소
- 현재 운영중인 발전소
- 1차 FIT 종료중 발전소
- 곤충사육장 + 태양광
- 버섯재배사 + 태양광

당사 및 당사관련사업소에서는

소형(100kW~1,000kW) 중형(1,000kW~3,000kW) 대형(3,000kW이상)의

## 태양광발전시설을 대량 매입중입니다

선로 걱정 아시고 전화주세요!

당사에서는 **개발행위**(건축물 위 공작물 축조신고)를 **무료**로 해드립니다. (\*건축물 구조진단 비용은 유료)

**환경과에너지종합기술단(주)**  
전기공사업면허 광주 제00988호

상  
담  
전  
화

**전국대표 1544-1926**  
**010-7614-1055**  
**010-2845-4754**